

화학제품 가공물가 소폭 하락

한국은행, 2002년 1월 전체물가 0.6% 상승 ... 프로필렌은 15% 하락

2002년 1월 화학제품 가공물가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프로필렌은 14.7%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2년 1월 가공물가는 전월대비 0.6%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.1% 하락했다.

화학제품은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프로필렌, 혼합 자일렌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을 중심으로 1.2% 하락했으며, 비금속광물제품은 활석분이 수입원석 가격 상승으로 오르고 브라운관용 유리 등 유리제품도 원화환율 상승에 따라 올라 0.4% 상승했다.

중간재는 경유, 등유 등 석유제품은 1.7%, 알루미늄괴, 동, 니켈 등 금속1차 제품은 0.6% 상승하는 등 원화환율 및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올라 전체로는 전월대비 0.1% 상승했다.

서비스를 제외한 재화부문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측정지표인 최종재는 자본재가 원화환율 상승에 따라 의료용 기구 등 수입기계류를 중심으로 오르고, 소비재도 농수산물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올라 2002년 1월에 비해 0.9% 상승했다. 다만, 2001년 1월에 비해서는 0.3% 하락했다.

소비재는 스피커시스템 등 내구소비재 0.3% 소폭 내렸으나 과일류 등 농수산물과 휘발유, 경유, 등유 등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비내구 소비재가 1.6% 올라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1.2% 상승했다.

가공단계별 물가동향(2002.1)

(단위: %)

구 분	가중치	전월대비			전년동월대비		
		11월	12월	1월	11월	12월	1월
원재료 및 중간재	584.69	-2.9	-1.6	0.5	-3.1	-6.0	-4.8
원재료	67.70	-10.1	-4.3	3.0	-11.4	-18.7	-7.7
중간재	516.99	-1.7	-1.1	0.1	-1.6	-3.6	-4.4
최종재	415.31	-0.2	-0.3	0.9	0.9	0.0	-0.3
자본재	148.59	-0.5	-0.6	0.2	1.7	-0.4	-1.6
소비재	266.72	0.0	-0.2	1.2	0.7	0.2	0.2
총지수	1000.0	-1.9	-1.1	0.6	-1.5	-3.7	-3.1

용도별로는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가 2.0% 원유, 우피 등 제조용 원재료가 3.1%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.

산업별로는 중간재 중 화학제품이 1.2%, 전력·수도 및 도시가스는 3.8% 떨어졌으나 석유제품이 1.7% 상승한 것을 비롯해 금속1차제품 0.6%, 비금속광물제품 0.4% 상승했다. 원화환율 및 국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.

석유제품은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추가감산 결정 및 원화환율 상승 등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경유 4.3%, 등유 5.4%, 휘발유 1.3%, 나프타 5.9%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1.7% 상승했다.

화학제품은 프로필렌이 14.8% 하락한 것을 비롯해 혼합자일렌 15.2%, 자일렌 7.2%, TPA 5.8%, EG 8.3%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1.2% 떨어졌다.

금속1차 제품은 알루미늄괴, 동, 니켈 등 비철금속 소재를 중심으로 0.6% 상승했고, 전기기계 및 장치는 국제 은가격 상승에 따라 에나멜동선, 절연전선 등 전선류를 중심으로 0.7% 상승했으며, 전력·수도 및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전월대비 3.8% 하락했다.